

제15권 10호

2025. 5. 26~2025. 6. 8

하나로여겨된
모두의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논단 | 초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길목에 서서 |
| 이슈분석 | 도심 오피스 공급집중의 영향 점검 |
| 금융경영브리프 | Circle, 스테이블코인에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로
MUFG,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예정 |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인하 사이클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장기금리
외 환 : 베일 속 환율 협상에 춤추는 외환시장
부 동 산 : 조기 대선 앞두고 시장 관망 |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	----------------

이슈분석

연구위원	황규완(gwhwang)
------	--------------

금융경영브리프

수석연구원	신상희(sanghuishin)
연구원	이시온(sieunyi)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외 환 수석연구원	신유란(yooran0111)
부동산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정안선(ansunc)
-----	-------------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제15권 10호

2025. 5. 26~2025. 6. 8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 | | |
|----|---------|---|
| 01 | 논단 | 초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길목에 서서 |
| 04 | 이슈분석 | 도심 오피스 공급집중의 영향 점검 |
| 08 | 금융경영브리프 | Circle, 스테이블코인에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로
MUFG,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예정 |
| 12 | 금융시장모니터 | 금 리 : 인하 사이클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장기금리
외 환 : 베일 속 환율 협상에 춤추는 외환시장
부 동 산 : 조기 대선 앞두고 시장 관망 |
| 18 | 금융지표 |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초저성장, 저금리 시대의 길목에 서서*

안 성 학 연구위원

우리나라 잠재 경제성장을 하락이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금리 하락은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구조적인 저성장, 저금리 시대 진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과거 10여년 전에 분석된 일본 사례의 벤치마크를 통한 시사점은 부동산 시장 상승과 이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희석되었지만 현재에도 유효하다. 금융회사의 수익원 다양화 전략, 개인들의 균형있는 자산관리 준비,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초저성장,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자세가 될 것이다.

:: 구조적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진입하였음을 알리고 있다. 심지어 2030년대에는 0%대로, 2040년대에는 역성장하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하였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026년 1.98%로 하락 전망한 바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1%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며 경기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내년 기준금리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경기 사이클에 따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저 성장에 따른 구조적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신호이다.

구조적 저성장 시대에
구조적 저금리
시대로의 진입은
불가피

이와 같은 구조적 저성장의 주된 요인으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지목되고 있는데 이는 은퇴 준비와 관련한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금리 시대 도래에 따른 금융회사들의 대응전략과 개인들의 자산관리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다. 특히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의 대표적인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하기 위해 국내 연구기관들이 연구 인력을 급파하면서 많은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제 2012년 당시의 저성장, 저금리 시대 진입 우려보다 더욱 심화된 저성장, 저금리 시대 진입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10여년 전의 오래된 보고서를 다시 꺼내어 곱씹어볼 시간이 되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여전히 높은 이자이익 및 부동산 비중

부동산시장 상승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및 부동산 금융
의존도를 심화

당시 일본의 과거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들은 저성장, 저금리 및 고령화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이자이익 부문보다는 자산관리 부문을 확대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충된 자기자본으로 IB 및 트레이딩 부문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국내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당시 부진하였던 부동산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결과를 낳았다. 금리하락 등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이자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다. 또한 IB 부문 확대 전략도 기업금융이나 M&A 등 본래적 의미의 IB보다 부동산금융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음

한편 개인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당시 시사점은 높은 수익률 획득이나 안정적인 자금흐름 확보였다. 절세 및 금융기관 수수료 절약 등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높은 수익률을 주는 글로벌 투자처 발굴이 실천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들의 각종 수수료가 인하되고 절세상품이 출시되었으며 해외주식 등 더 높은 수익률을 주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일본 사례를 모방한 월지급식 펀드 상품도 한때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상승은 개인들의 자산관리 폭을 두텁게 하기보다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률을 보인 이후 ‘따라하기 투자’를 야기시키는 포모(Fomo) 현상을 부추기며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초래하였다.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부동산 비중이 77.3%^[1]에 달하며 균형있는 자산관리로부터 더욱 멀어졌다.

가계 및 일부 금융회사들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집중한 결과, 가계부채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급증하였으며 가계부채를 제어하기 위한 규제 강화와 금리 상승은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져오면서 증가한 이자부담과 소비 위축이 경기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은 부실 PF 금융과 관련한 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부동산시장이 위축되고 포모 현상이 해외주식, 가상자산 등의 금융자산으로 이전되면서 부동산 보유 비중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의미있는 자산관리로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과 시장변동성 확대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중장기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대한상공회의소(2025)

❖ 수익원 다양화, 자산관리 강화를 통한 대응전략은 유효

향후 경기 반등으로 성장률과 금리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나 저성장, 저금리 시대라는 고착화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저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수차례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과거 일본 사례의 벤치마크에 따른 시사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벤치마크 시사점에 제시되어 있는 ‘금과옥조’와는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큰 문제점으로 인식되면서 부동산시장을 경기활성화의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부채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부동산 금융구조를 개선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은 부동산시장의 상승 폭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여전히 대출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자이익을 통한 금융회사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구조화될 경우 수익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에 좀더 힘을 써야 한다. 자산관리 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은 개인들의 자산관리나 은퇴 준비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이자이익이라는 캐쉬카우를 바탕으로 IB 및 트레이딩 역량 제고가 필요하며 이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반이 되고 경제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최근 높은 수익률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급증은 개인들의 자산관리 차원에서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줄이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지난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속화가 좋은 예로서 이는 개인들의 자산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순기능적인 제도 마련과 규제완화 뿐만 아니라 불공정행위에 의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도록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거 일본사례의
벤치마크 시사점은
현재에도 유효

금융회사는 이자이익
의존도를 낮추고
수익원을 다양화하는
전략 필요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순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도심 오피스 공급집중의 영향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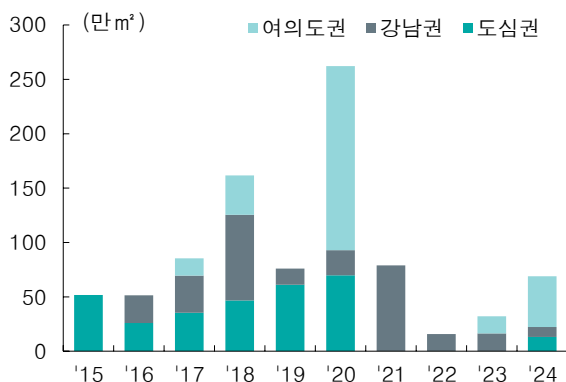
황 규 완 연구위원

서울 중 업무지구, 특히 도심권에 기존 재고의 40%에 달하는 신규 오피스 공급이 집중될 예정으로 오피스 공급과잉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안정적 운용이 예상되고 준공 이후 원활한 처분도 기대되고 있는 점이 공급확대를 견인했다. 'Flight to Quality' 트렌드의 지속,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성 개선 가능성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서울 중심에서 외곽으로의 업무지구 외연 확장에 따른 임대기업 확보 경쟁 심화, 노후 오피스에 대한 외면 등의 부작용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2030년까지 서울 도심권에 기존 재고의 41%에 달하는 오피스 공급이 집중될 예정

- 서울시내 주요 업무지구에서 2030년까지 준공 예정인 오피스 연면적은 404.6만㎡로 단순 계산으로 매년 67.4만㎡의 오피스가 신규 공급될 예정
- 주요 업무지구에서 공급 예정인 오피스 면적은 장기(2015~2024년) 연평균 공급량의 75% 수준으로 공급과잉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은 편
 - 서울 주요 업무지구 장기('15~'24년) 연평균 오피스 공급량 : 884,582㎡
- 다만, 도심권에 연평균 54.5만㎡의 공급이 집중될 예정인 관계로 국지적인 공급 집중에 따른 공실 증가 및 매매가격 조정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
 - 도심권 장기('15~'24년) 연평균 오피스 공급량 : 30.4만㎡
 - 도심권에 공급 예정된 오피스 공급량은 기존 재고(802.9만㎡)의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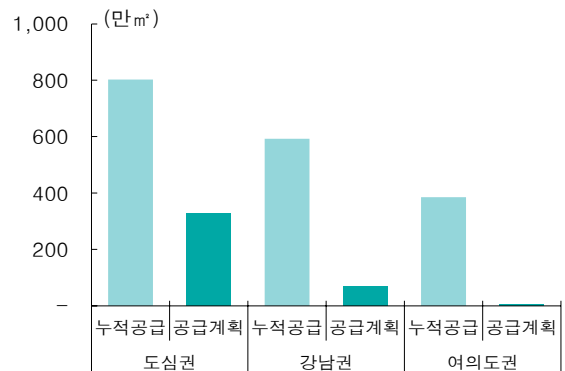
■ 서울 주요권역 오피스 공급 추이



주 : 업무시설 중 연면적 2만㎡ 이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산 (오피스텔 제외)

자료 : 세움터, 하나금융연구소

■ 서울 오피스 재고와 신규 공급 계획 물량



주 : 공급계획은 '30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오피스 연면적 합계

자료 : 세움터, 언론기사 종합,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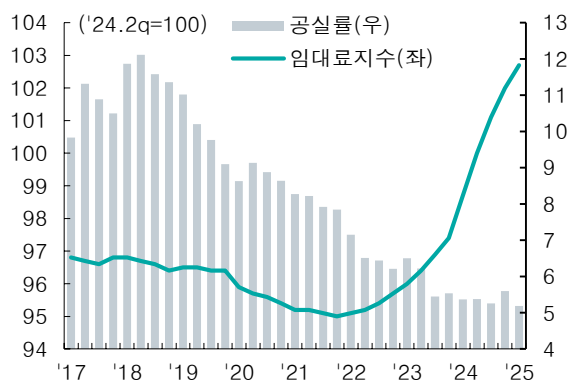
■ 임대시장의 수급여건 개선으로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개발에 대한 관심도 증대

-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임대료도 2021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운용측면의 안정성은 개선되는 중
-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대형 오피스의 공실률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낮은 2% 후반대로 측정되는 등 운용측면의 안정성은 더욱 부각
 - 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 7.9('18.4q) → 1.9('22.4q) → 2.9('24.4q) (알스퀘어)
- 개발 이후 안정적인 운용이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PF 자금 시장에서도 서울 오피스 개발에 관심이 높다는 점 또한 서울 오피스 공급확대의 주요한 요인
 - 2024년 4월말 기준 매각 추진 PF 사업장(총 395개) 중 오피스빌딩은 6개에 불과

■ 금리 충격 등의 해소로 준공 이후 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공급 증가의 주된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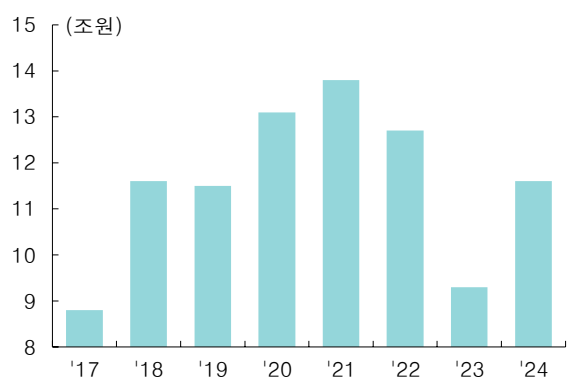
- 서울 대형 오피스 매매시장은 2023년 금리급등 및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되었으나 2024년에는 평균 수준으로 회귀, 안정성이 확인
 - 서울 대형 오피스 거래규모(조원) : 평균('17~'24년) 11.6, 9.3('23년), 11.6('24년)
- 특히, 부실 이슈가 있는 해외 부동산에 비해 국내 오피스 투자는 부실이 거의 없어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써 장점이 부각되는 중
 - '24.9월말 해외 부동산 투자액(34.3조원) 중 E.O.D 발생 비중은 7.7%(2.6조원)
- 대형 오피스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및 상장 REITs가 꾸준히 성장하는 등 우호적인 자본시장을 바탕으로 준공 이후 원활한 매각이 기대되는 점도 공급 증가의 요인
 - '24년말 기준 부동산 펀드의 AUM은 170조원이며, 상장 REITs의 AUM은 16조원

■ 서울 오피스 공실률 및 임대료지수 추이



주 :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는 '17~'18, '19, '20, '21, '22~'24.2q, '24.3q 이후 등 구간별로 샘플이 변화(증가)되었음에 주의
자료 : 한국부동산원

■ 서울 프라임급 오피스 매매 규모



주 : 프라임급 오피스는 연면적 3만㎡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중 입지, 시설수준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건축물
자료 : Cushman&Wake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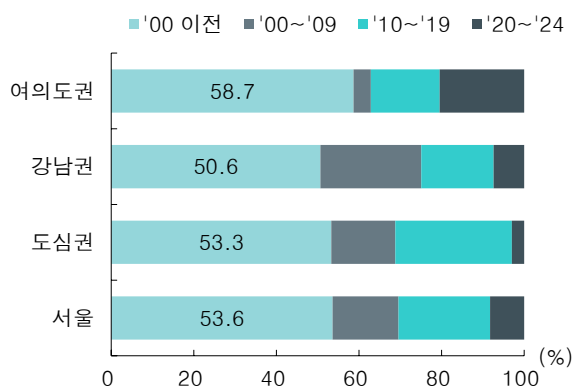
■ 공급 집중은 부담이나 'Flight to Quality'에 따른 이전수요로 상당부분 흡수가 예상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오피스 시장에서 고품질 오피스를 선호하는 'Flight to Quality'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중
 - 미국 맨하튼의 경우 프라임급 오피스의 임대료는 \$200/sf 수준인 반면 이보다 낮은 Grade A등급의 오피스 임대료는 \$60~90/sf에 불과 (JLL)
- 사무환경이 기존 직급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개방적이고 유연한 공간 활용이 중요시되고 있어 이를 설계에 반영한 신축 고급 오피스에 대한 임차인의 선호가 'Flight to Quality'의 원인
- 투자자 역시 공실 우려가 낮아 안정적인 임대운용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높은 에너지 효율, 통합 관리체계 등으로 운용비용이 낮은 신축 고급 오피스를 선호
- 서울 오피스는 상당수 노후 오피스(준공 20년 이상)로 구성되어 공급 집중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오피스 임차인의 이전수요로 상당부분 흡수가 가능할 전망

■ 중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증대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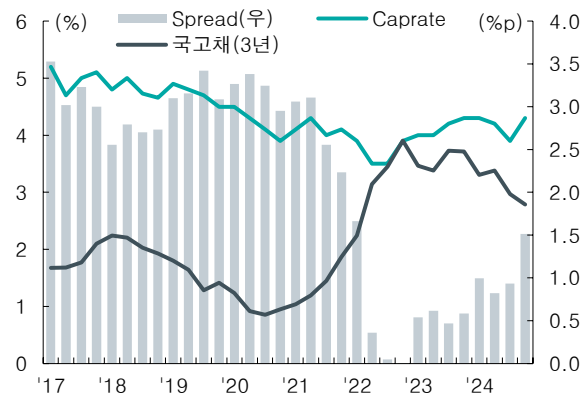
- 서울 오피스에 대한 기대수익률(Caprate)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시중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매력도(Spread)는 크게 저하
 - ※ Caprate은 부동산 순 운영이익(Net Operating Income)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부동산 가치를 추정하는 지표이나 부동산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의미하기도 함
- 최근, 시중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Spread는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Spread의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관심 증대 및 거래 시장 개선이 기대
 - 시장에서는 성장률 부진으로 한은이 연내 2~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

■ 준공 시기별 서울 오피스 분포



자료 : 세움터, 하나금융연구소

■ 서울 오피스 Caprate 및 Spread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젠스타메이트, 하나금융연구소

■ 단, 기업의 외곽 이전 및 업무지구의 외연 확장으로 임차기업 확보 경쟁은 치열할 전망

- 다만, 과거와는 달리 기업들이 본사의 위치를 주요 업무지구로 고집하지 않고 있어 신축 오피스의 흡수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에는 주의가 필요
 - 최근 몇몇 대기업들은 비용효율성, 관련 산업 생태계 활용 등 복합적인 이유로 광명, 마곡, 영등포 등 과거 외면하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
- 서울시의 7광역중심 육성(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으로 업무지구는 용산, 마곡, 잠실 등으로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강남 업무지구의 대안으로 떠오른 분당, 판교 등을 감안하면 업무지구 간 임차기업 확보 경쟁 심화가 우려
 - 7광역중심 : 용산, 청량리·왕십리, 창동·상계,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잠실

■ 대규모 부실 가능성은 낮으나 일부 사업장 및 노후 오피스의 경우 공실 장기화 및 임대 수익 저하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대비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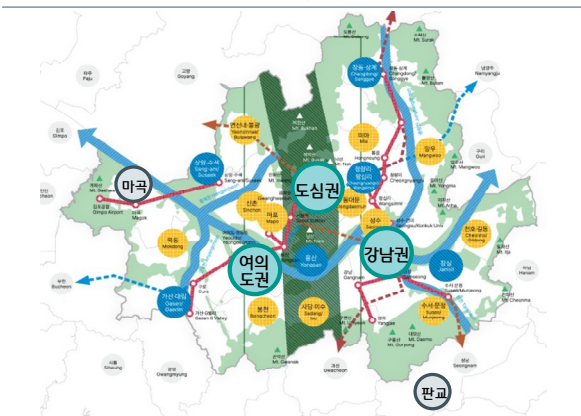
- 안정적인 사업구조, 신규 오피스에 대한 높은 선호, 장기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공급수준 등을 고려하면 공급집중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편
- 일부 공급 예정인 오피스는 일반적으로 주요 업무지구로 인식되지 않은 곳에 위치해 공실해소가 지연될 수 있어 투자활동 등에 있어 옥석가리기는 필수
 - 대규모 오피스 공급 이후 임대 안정화에는 19개월 정도가 소요되나(KORAMCO) 선호도가 낮은 입지일 경우 공실 장기화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우려
- ‘Flight to Quality’ 현상은 오피스 시장의 중장기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임차인의 신규 오피스 이전에 따른 노후 오피스 공실에 미리 대비할 필요
 - 높아진 공사비, 낡은 설계개념의 한계 등으로 노후 오피스의 리모델링 등으로는 최신 오피스 수요 트렌드를 충족하기는 어려운 실정 

■ 서울 7광역중심지 육성 방안

중심지명	육 성 방 향
용산	서울 도심·여의도가 연계된 국제업무 중심지
청량리·왕십리	지역균형발전 선도 혁신산업·문화 중심지
창동·상계	수도권 동북부 일자리·문화 중심지
상암·수색	디지털 미디어 기반 글로벌 창조문화 중심지
마곡	미래 선도형 지식산업기반의 고용 중심지
가산·대림	G밸리 연계 기반한 신성장 산업의 중심지
잠실	강남 도심과 연계한 국제업무관광 중심지

자료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 및 서울 인근 업무 중심지구



자료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Circle, 스테이블코인에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로

신상희 수석연구원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인 Circle이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인 ‘Circle Payment Network’ 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송금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신·결제 시스템이다. 환거래은행을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국가간 지급결제 절차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체할 경우 송금 소요시간을 당일로 단축하고 비용 절감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기관도 혁신의 물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 스테이블코인 USDC(USD코인) 발행자인 Circle이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인 ‘Circle Payment Network’(이하 ‘CPN’) 추진 계획을 발표^[1]

- CPN이란 금융기관이 자본이동 규제를 준수하면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가간 지급결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통신·결제 시스템
 - 개인·기업은 CPN에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송금, 해외결제, 무역대금 결제 등 다양한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실시간·저비용으로 이용 가능
- '25년 4월 Circle이 CPN 백서(white paper)를 발표한 이래 시범운영(pilot) 중으로 금융기관, 핀테크, 가상자산 사업자 등 28개사가 CPN에 참여 중
 - 은행 파트너사는 Santander, Deutsche Bank, Société Générale, Standard Chartered로 국가간 지급결제 인프라 설계 및 구축에 대한 자문을 제공

■ CPN은 환거래은행 체제를 블록체인 인프라로 대체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결제 절차를 개선

- **(현재)** 국가 간 지급거래는 송금인 은행과 수취인 은행 간 다수의 환거래은행(correspondent bank)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비용상의 비효율이 발생
 - 환거래은행 간 운영시간 차이, 국가간 자본이동 규제 점검 절차의 중복 등으로 국가간 지급결제는 통상 1영업일 이상 소요되며 지급액의 약 12%가 비용으로 발생
- **(CPN)** 송금·수취 금융기관이 직접 국가간 지급거래를 처리하므로 시간·비용 절약
 - 송금 금융기관은 CPN에서 최적 환율을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수취 금융기관)을 탐색하고, 법정통화를 스테이블코인으로 환전(on-ramp)하여 송금 수행
 - 수취 금융기관은 송금받은 스테이블코인을 현지 법정통화로 환전한(off-ramp) 다음 수취인 거래은행 계좌로 지급

[1] “Circle Payment Network White Paper”, Circle, 2025.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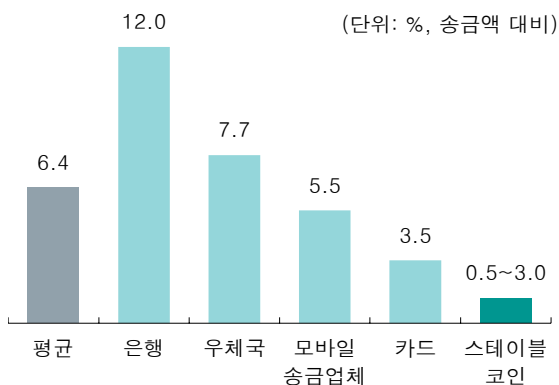
■ Circle은 다양한 국가간 지급결제 관련 기업들이 거래하는 생태계로서 CPN을 구상

- CPN의 운영·참여자 ① Circle, ② CPN 회원(금융기관·가상자산 사업자), ③ CPN 서비스제공자(금융·비금융기관)로 구분 가능
 - **(Circle)** CPN의 운영자로서 규정·표준을 제정하고, 참여기관의 자격(규제준수 여부 등)을 검증 및 모니터링하며, CPN의 기반 인프라를 운영
 - **(CPN 회원)** 자본이동 규제 및 CPN 규정·표준에 따라 국가간 지급거래를 수행
 - **(CPN 서비스제공자)**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CPN 회원의 거래를 지원하고, 가상자산 지갑, 수탁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
- CPN에서 통용되는 스테이블코인도 Circle뿐 아니라 제3자 발행까지 폭넓게 인정할 예정
 - 현재 CPN이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은 Circle이 발행한 USDC 및 EURC지만, 향후 서비스 생태계가 확장될 경우 그외 스테이블코인도 지원할 계획

■ 국내 금융기관도 국가간 지급결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고려할 필요

-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진전되며 이를 활용해 국가간 지급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혁신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 XRP(리플)의 발행사인 Ripple은 가상자산 기반의 국가간 지급결제 시스템인 'RippleNet'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표하고 Circle 인수를 시도함으로써 국가간 지급결제 분야의 영향력 강화를 도모
 - 日 메가뱅크(MUFG·SMBC·Mizuho)의 'Project Pax'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환거래은행 구간을 대체함으로써 해외송금 절차를 개선하려고 시도
- 우리나라는 아직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융회사가 해외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간 지급결제에 활용하려고 시도 중
 -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은 日 Project Pax에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송금, 환전, 역외 지급결제 등의 개선 효과 및 기술적 가능성을 점검 

■ 송금비용 비교 (송금액 200달러 기준)



자료: World Bank, Coinbase

■ CPN을 통한 해외송금 과정



자료: Circle

MUFG,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예정

이 시 은 연구원

MUFG는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인터넷 은행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확대에 따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수요 증가와 제로 금리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이다. 일본 내 1,2위 인터넷 은행 모두 계좌 수와 예금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높은 ROE를 기록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도 젊은 손님 기반 확보 등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고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 MUFG는 '26년 구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규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계획^[1]

- MUFG는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한 100%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은행을 설립할 방침이며,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할 예정
-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웰스나비(MUFG의 자회사)와 함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른 인터넷 은행들과의 차별화를 구상 중
 - AI를 활용해 손님 데이터를 분석하여 생애주기별(대학 입학, 취업, 결혼, 출산, 주택 구매 등) 최적의 금융 상품을 제안하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

■ 이는 향후 사회·경제 변화에 의한 인터넷 은행의 성장 가능성 확대^[2]에 따른 것

- MUFG는 인터넷 बैं킹에 익숙한 세대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인터넷 은행 설립을 통해 젊은 디지털 네이티브 손님 기반을 유치하고자 함
 - 일본의 전체 인구 중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1990년대생~)의 비중은 25%('20년)→43%('30년)→53%('35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
 - MUFG는 인터넷 은행 출범을 통해 젊은 개인 손님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네이티브 인구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
- 제로 금리가 종료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 간 수신 금리 차이가 확대되며 향후 인터넷 은행의 예금 경쟁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부각^[3]
 - 소니은행(인뱅)의 정기예금(1년) 금리는 0.450%으로, 3대 메가뱅크 0.275%보다 높음

[1] "Japan's MUFG Bank to Launch Online Bank in FY26; New Online Bank to Be Made More User-Friendly With Help from Google", The Japan News, 2025.05.08

[2] "日本でデジタルバンクが成功するための要諦", The Finance, 2024.10.16

[3] "Japanese digital banks outpace megabanks in deposit growth as rates rise", S&P Global, 2024.0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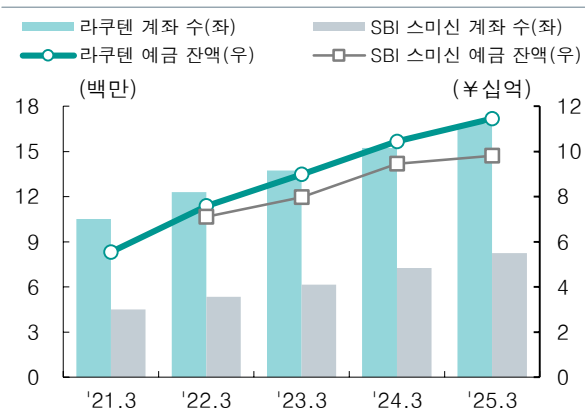
■ 실제로 일본 상장 대형 인터넷 은행 2곳 모두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지속 중

- 라쿠텐 은행과 SBI 스미신 넷 은행은 일본 내 최대 인터넷 은행들로, '23년 상장한 이후 예금을 중심으로 손님 기반을 확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라쿠텐은 일본 1위 인터넷 은행으로, 예금계좌 수는 1,683만 개('25.3월), 예금 잔액은 11.42조엔('25.3월)으로 각각 CAGR^[4] 12.4%, 18.7%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
 - SBI 스미신은 예금계좌 수 825만 개('25.3월), 예금 잔액 9.81조엔('25.3월)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1.8%, 16.3%를 기록하며 빠른 증가세를 시현
- 특히,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며, 이자이익 증가를 중심으로 두 인터넷 은행 모두 높은 ROE를 기록하며 수익성이 증대
 - 일본 금리가 인상됨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이자이익을 중심으로 수익 증대: 이자이익 비중은 라쿠텐 61.4%('24.3)→69.4%('25.3), SBI 스미신 45.8%('24.3)→49.8%('25.3)
 - 라쿠텐과 SBI 스미신의 ROE는 각각 18.0%, 17.5%를 기록('25.3월)하였는데, 이는 3대 메가뱅크에 비해 두 배 높은 수준(MUFG 9.9%, SMBC 8.0%, Mizuho 9.4%)

■ 국내 시중은행도 디지털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변화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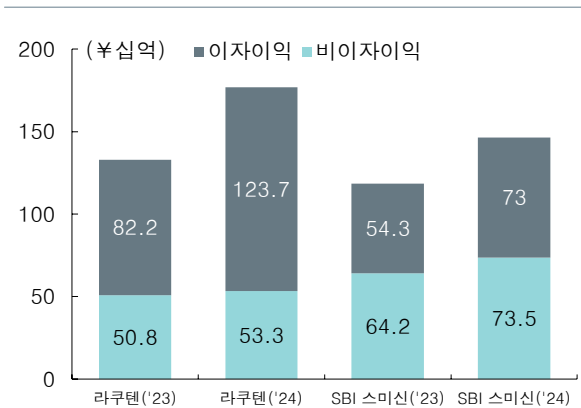
- 국내 시중은행은 AI와 디지털 화폐(CBDC, 예금 토큰 등), 슈퍼앱 등 디지털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IT 인력 부족, 앱 UI/UX 등이 제약으로 작용
 - 5대 시중은행 앱의 NPS(순고객추천지수)는 -17.3점 ~ -29.3점인데 반해, 인터넷 은행은 9.3~26.3점으로 큰 격차의 주된 요인은 UI/UX에서 발생^[5]
- 향후 국내 시중은행은 IT 관련 인력 충원, 앱 UI/UX 개선 등 효율화를 통해 젊은 손님층 및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개선할 필요^[6]

■ 라쿠텐과 SBI 스미신의 계좌 수 및 예금잔액 추이



자료 : 각 사 Investor Relations, Annual Report

■ 라쿠텐과 SBI 스미신의 이자이익 및 비이자이익



자료 : 각 사 Investor Relations, Annual Report

[4] CAGR은 FY2020~FY2024 기준으로 계산

[5] “추천 1위 은행 앱은? 5대 시중은행부터 토스·카뱅까지 NPS 비교”, 오픈서베이 데이터스페이스, 2024.09.05

금리: 인하 사이클에도 내려오지 못하는 장기금리

민 현 하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각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했다. 美 장기 금리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로 인한 美 국가 신용등급 강등과 20년물 입찰 부진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국내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확산에도 美 금리 상승에 연동되어 소폭 상승했다. 향후 국내 시장금리는 5월 금통위 성장률 하향 조정과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시사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외금리 상승 부담과 인하 기대 선반영이 부각되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하락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각국 재정 정책 및 통상여건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상승

- 美 금리는 감세안 결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재정적자 및 이자비용 우려 확대와 관세 發 물가 상승 부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으로 상승
 - 연준 인사들은 관세 發 스테그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정책 결정 신중론 표명
- 무역전쟁 發 경기 침체 우려는 美·中 무역협상 진전으로 축소되었으나 실물 경제에 미치는 정책 영향과 美 자산 신뢰도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은 지속
 - 美·中 무역협상에서 90일 유예기간을 두고 각각 115%씩 낮추기로 합의
- 日 장기금리는 7월 선거 전 재정 지출 요구 확대에 따른 국채 매각 가능성 증가와 美 관세 협상의 영향력 확인 필요성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속도 지연 전망으로 상승
 - 日 30년물 금리는 5/21일 기준 3.185%로 1999년 이후 최고치 기록

■ 5월 금통위 인하 기대감에도 외국인 선물 매도세 확대로 시장금리 움직임은 제한적

- 韓 시장 금리는 대외금리 상승에 연동되어 반등했지만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금리 인하 폭 확대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제한
 - 국내외 기관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정(%) : IMF 2.0 → 1.0, KDI 1.6 → 0.8
- 글로벌 통상여건 완화에 따라 성장률 낙폭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시장금리의 낙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
 - 외국인 국채 3/10년 선물 순매수(조원) : 4월 23.0 / 12.3 → 5/22일 기준 -7.9 / -9.5
- 美·中 무역 협상 등 통상여건 불확실성의 점진적 완화, 원/달러 하락 등 금통위 금리 인하 제약 요건이 일부 해소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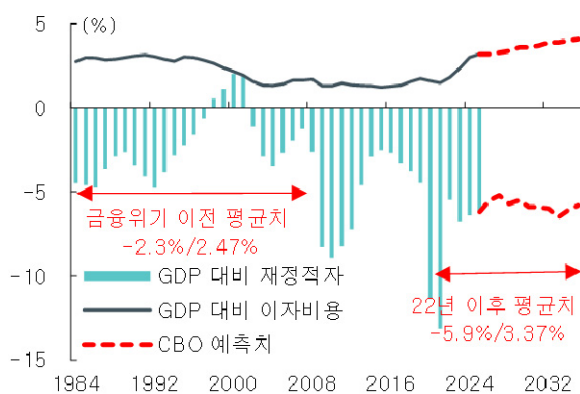
■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 20년물 입찰 부진까지 장기금리 상승 견인

- 무디스가 美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Aaa → Aa1)했고 IMF 등의 기관들이 美 이자비용과 재정적자 확대 우려를 표명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대
 - CBO(미 의회예산국) 재정수지 전망(%) : '25년 -6.2 → '33년(E) -6.5 → '33년(E) -5.8
- 美 재무부는 20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160억 달러 규모)했지만 수요 부진으로 발행 금리가 과거 평균치(4.61%)를 웃돌며 장기금리 상승을 견인
 - 입찰 전후 20년물 금리(%) : 전 5.04 → 발행 수익률 5.05 → 직후 5.10 (30년물 5.07)
- 韓 장기금리는 '25년 상반기 장기물 중심의 순발행 물량 대폭 확대로 수급 부담이 증대되었고 대외금리와 연동되며 상승 압력이 부각
 - 韓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이에 따른 외국인 순투자 급증으로 제한적 상승

■ 5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인하에 이어 하반기 추가 2회 인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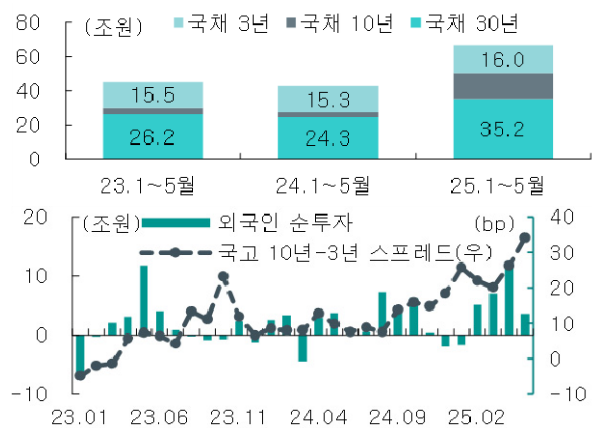
- 韓 금리는 美 자산 신뢰도 이슈에 따른 대외 금리 상승에도 5월 금통위 금리 인하 및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하락할 전망
 - 한은, 美 관세 충격으로 성장률 큰 폭 하향 조정과 금리 인하 폭 확대 시사 예상
- 6월 대선 이후로 예상되는 2차 추경도 8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해 'Policy Mix'를 통한 성장률 제고 효과도 지연되며 금리 인하 신중론 제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장단기 스프레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 영역 낙폭에 비해 공급물량 확대·수급 여건 악화가 부각되고 있는 장기물 낙폭 제한으로 축소되기 쉽지 않을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2.20%~2.40%, 2.55%~2.75% 범위로 전망 

■ 美 GDP 대비 재정적자 및 이자비용 추이 및 전망



자료 : Fred, CBO, 하나금융연구소

■ 국채 만기별 순발행 및 외국인 현물 순투자 추이



자료 : 인포맥스, 하나금융연구소

외환: 베일 속 환율 협상에 춤추는 외환시장

신 유 란 수석연구원

美·대만 환율 협상 의혹으로 인한 대만 달러 가치 급등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급락하였다. 이후 대만 당국이 환율 협상을 부인하며 하락폭이 축소되었으나, 美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달러 약세, 美·中 무역 협상 진전 및 韓·美 환율 협의 소식 등으로 원화는 강세를 지속하였다. 美 재정적자 우려 확대로 달러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美·亞 환율 협상 가능성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위적 통화가치 조정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 [원/달러 환율] 美·中 무역 협상 진전 및 美·亞 환율 협상 기대감 등으로 하락

- 원/달러 환율은 美·대만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만 통화가치 절상 협상 의혹이 확산하면서 대만 달러 가치가 급등한 영향으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며 하락
 - 美·대만 환율 협상 논란으로 대만 달러가 10% 가까이 절상되며 원/달러 환율이 6개월여 만에 1,370원대에 진입하였으나, 이후 대만 당국이 부인하며 일부 되돌림 시현
- 美·中 무역 협상에 따른 위험선호 회복 및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美 신용등급 강등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원/달러 환율 하락
- 이후 韓·美 환율 협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원화 절상 기대감 상승과 美·亞 국가 간 통화 협상 가능성으로 亞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추세

■ [국제 환율] 美·中 무역 협상으로 위안화 강세, 美 신용등급 하락으로 달러 약세 전환

- 달러화는 美·中 무역 합의로 美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강세를 보였으나, 정부 재정적자 심화에 따른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 영향 등으로 약세 전환
- 유로화는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러·우 종전 협상 진전 기대, 美·英 무역 합의 및 EU·英 무역 협정 기대감 등으로 강세 전환
- 엔화는 3월 주요 경제지표 부진 영향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 간 환율 협상 기대감으로 아시아 통화가치가 상승하면서 강세
- 위안화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美·中 간 관세 전쟁 우려가 완화되고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하면서 강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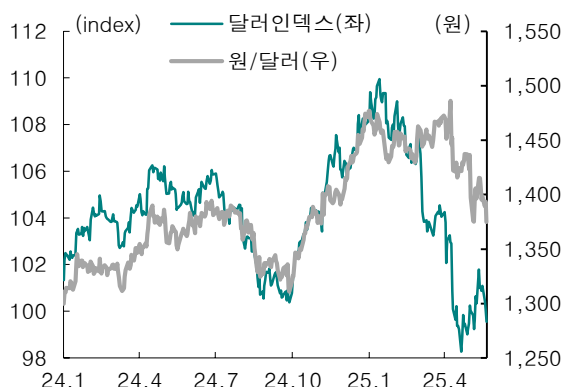
■ 미국의 亞국가 통화가치 절상 압박 및 환율 협상 가능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

- 미국이 만성적인 무역적자 탈피를 위해 주요 협상 대상국에 관세 협상의 일환으로 통화가치 절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 미국과 대만, 한국, 일본과의 환율 협상 소식으로 亞 통화가치가 상승하였으나, 미국의 환율 공식 의제 미포함 발표로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는 등 환율 변동성이 확대
- 트럼프 1기에는 간접적 조치에 그친 반면, 트럼프 2기에는 핵심 협상 내용 중 하나로 직접적인 압박과 통화절상 요구 등 1기에 비해 강도가 심화
 - 트럼프 1기에는 인위적 통화 절하에 대한 비판 및 환율조작국/관찰대상국 지정 등을 통해 환율조작 방지 원칙을 재확인하고 무역 협상의 보조적 카드로 활용
- 환율 협상 이슈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亞 통화가치가 등락을 거듭해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弱달러 기조 및 亞 통화절상 기대로 환율 하단이 낮아지는 모습

■ 원/달러 환율은 환율 협상 기대 등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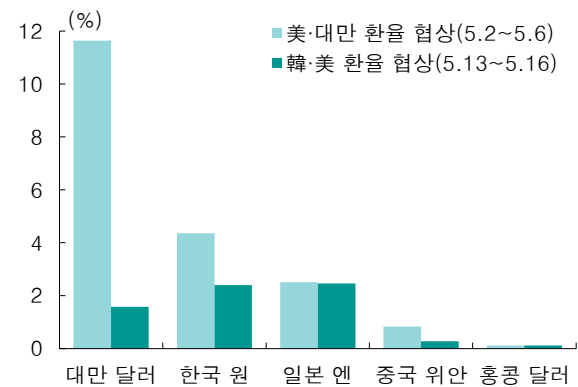
- 미국이 주요 무역상대국들과의 무역 협상에서 통화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亞 통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원화가치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아울러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도 이어 트럼프 감세안이 美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달러화 약세 압력이 지속
-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속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인한 위험선호심리 회복 및 환율 협상 가능성에 따른 원화 강세 압력 등으로 하락 추세를 지속할 전망
- 다만, 환율 협상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환율 협상에 따른 인위적인 통화가치 조정이 환율 변동성 확대 및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
 -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350~1,410원에서 움직일 전망 

■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美·대만, 韓·美 환율 협상 의혹 전후 통화가치 변동



주 : 환율 협상 의혹 전후 기간 중 통화가치 최저 대비 최고 변동률
자료 : 인포맥스

부동산: 조기 대선 앞두고 시장 관망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토허제 해제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상승했으나 대부분 지방에서는 부진해 전월 대비 하락 전환하였다. 대출 규제, 조기 대선으로 시장 관망세는 유지되나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관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을 고려해 수도권만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미분양 우려 증대, 건설사 법정관리 지속, 분양 저조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 지연 등이 지속되는 지방 부동산시장에 대한 지원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 상승에도 대부분 지방의 침체 영향으로 하락 전환

- 수도권 내 선호지역(강남3구, 과천, 용인 등)은 상승했으나 입주물량 집중, 미분양 적체, 시장 관망세 영향에 따른 대부분 지방의 침체로 전국 주택가격 하락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MoM) : -0.06('25.2월) → 0.01(3월) → -0.02(4월)
- 아파트 가격은 대출 규제로 매수세 위축 영향이 집중되며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저가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세 유지
 - 유형별 상승률(% , MoM, 3월/4월) : 아파트 0.00/-0.06 연립 0.02/0.01, 단독 0.07/0.08
- 전세가격 또한 서울, 과천, 울산 등에서 상승세 보였으나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하향 조정되고 전세 대신 월세 거래가 늘며 전국 기준 보합으로 전환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 MoM) : -0.01('25.2월) → 0.03(3월) → 0.00(4월)

■ 조기 대선으로 관망세 지속되나 공급 부족 우려로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세는 유지

- 한 달 남짓의 토허제 해제로 주택 거래량이 늘며 주담대 증가폭도 확대되었지만 가계대출 관리, 조기 대선 후 매매시점 지연으로 매매거래는 다시 위축될 전망
 - 신한은행권 가계 주담대 증감(조원, MoM) : 4.9('25.2월) → 3.7(3월) → 4.8(4월)
- 또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등 투자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관련 입법안이 조기 대선으로 심의가 지연되면서 시장 관망세가 당분간 지속
- 다만, 공급 부족에 따른 매수세 자극, 규제 강화로 인한 가격 풍선효과 등으로 수도권 핵심 지역의 매매거래는 유지되며 수도권 중심 가격 상승은 지속될 전망
 - 전년 말 대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 서울 1, 수도권 0.15, 5대광역시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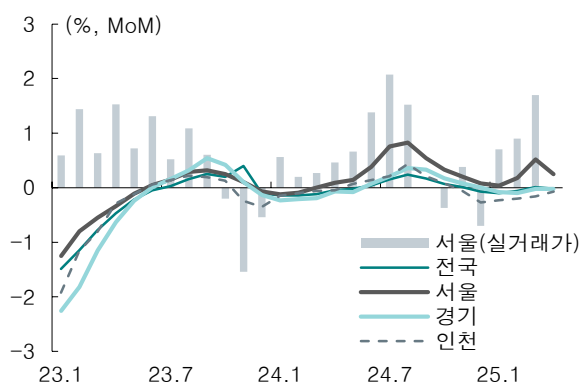
■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을 고려해 수도권만 우선 적용할 예정

- 금융당국은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했으며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
- 스트레스 DSR 3단계가 '25.7월 시행되며 수도권에서는 기존 계획안대로 스트레스 금리 1.50%를 적용하나 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는 지방은 '25년 말까지 적용 유예
 -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하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시 스트레스 금리 부과
- 수도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추가자금 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분양가 부담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주택 매매거래량이 위축될 우려 증대
 - 미분양 재고(호, '24.3월 → '25.3월) : 수도권 11,977 → 16,528 / 지방 52,987 → 52,392

■ 지방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은 조기 대선 이후에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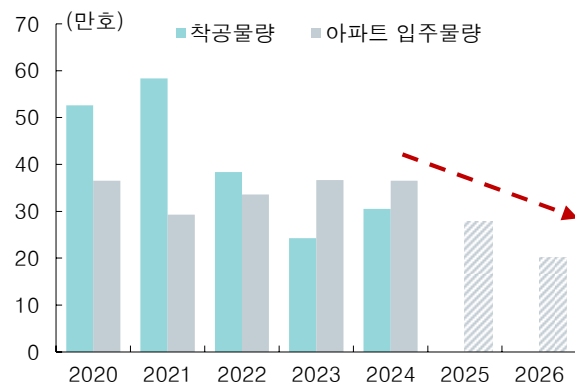
- 개발원가 상승, 지방 중심의 미분양 우려 증대, 입주물량 해소 장기화 등으로 신규 착공이 감소하고 건설사의 법정관리가 증가하는 등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
 - 신동아건설(시공능력평가 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 지방 및 비아파트 PF 사업장 재구조화 난관, PF 사업장 매물 적체, 분양 저조로 인한 자금 회수 지연으로 PF 부실이 지속되며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가 심화
 -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25.5월) : 서울 116.6, 수도권 104.4, 비수도권 86.4
 - ※ 85 미만 시 하강 국면, 85~115 미만 시 보합 국면, 115~200 미만 시 상승 국면
-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매물 적체 해소를 위한 미분양 매입 유도책, 세제 완화 등의 거래 활성화 방안이 조기 대선 이후에 확대될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착공물량 및 아파트 입주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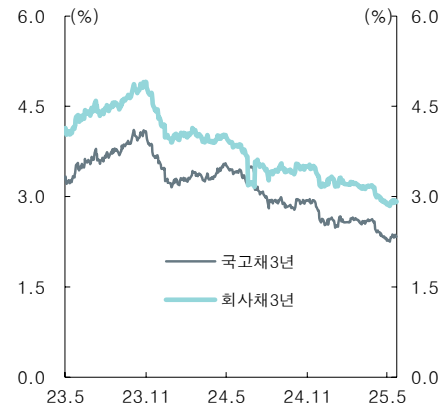
주 : 2025~2026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상 수치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부동산114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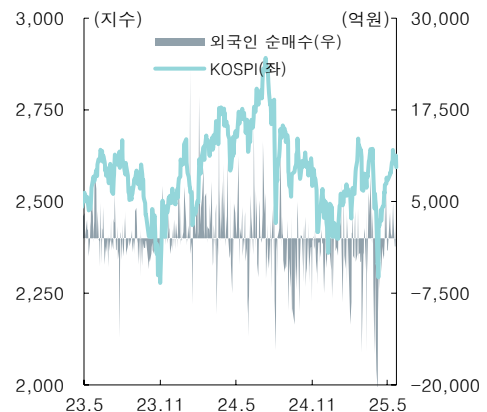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4월말	2.78	2.71	2.54	2.87	2.27	2.38
5월 16일	2.77	2.70	2.50	2.90	2.32	2.45
5월 19일	2.75	2.71	2.50	2.94	2.37	2.50
5월 20일	2.75	2.68	2.48	2.91	2.33	2.47
5월 21일	2.76	2.67	2.49	2.92	2.35	2.50
5월 22일	2.75	2.67	2.49	2.92	2.34	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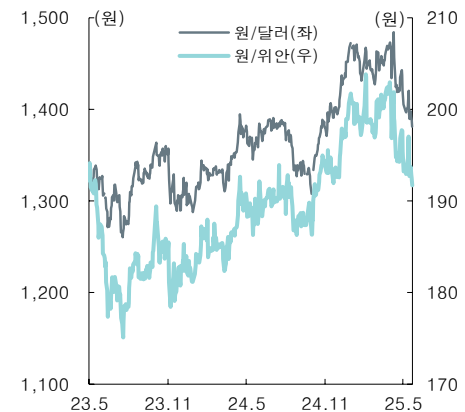
●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4월말	2,556.6	84,356	487	-1,686
5월 16일	2,626.9	80,250	360	1,698
5월 19일	2,603.4	67,524	313	-1,138
5월 20일	2,601.8	76,614	457	-1,145
5월 21일	2,625.6	74,411	372	1,950
5월 22일	2,593.7	89,655	358	-2,265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35.5	928.0	197.0	1,487.9
4월말	1,421.0	993.2	195.4	1,609.7
5월 16일	1,389.6	954.1	192.7	1,551.3
5월 19일	1,397.8	964.8	193.7	1,570.9
5월 20일	1,392.4	963.4	192.9	1,570.8
5월 21일	1,387.2	965.4	192.5	1,571.5
5월 22일	1,381.3	959.1	191.7	1,5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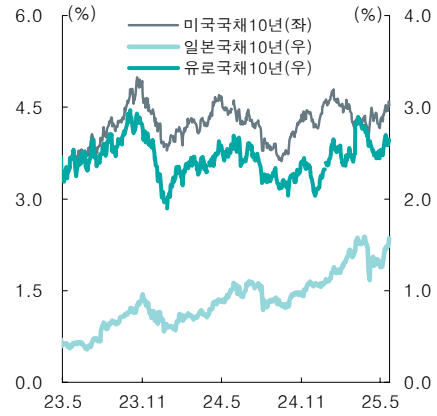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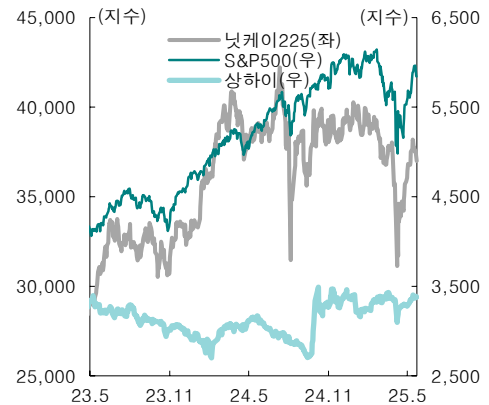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 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31	4.24	4.57	1.10	2.37
4월말	4.33	4.36	3.60	4.16	1.32	2.44
5월 16일	4.33	4.36	4.00	4.48	1.46	2.59
5월 19일	4.33	4.36	3.98	4.45	1.49	2.59
5월 20일	4.33	4.35	3.97	4.49	1.51	2.61
5월 21일	4.33	4.35	4.02	4.60	1.53	2.65
5월 22일	-	4.35	3.99	4.53	1.57	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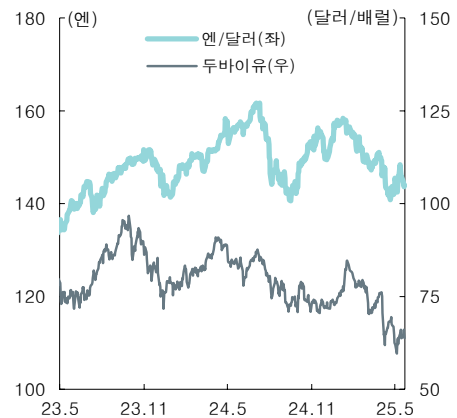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4월말	5,569.1	36,045.4	3,279.0	5,160.2
5월 16일	5,958.4	37,753.7	3,367.5	5,427.5
5월 19일	5,963.6	37,498.6	3,367.6	5,427.2
5월 20일	5,940.5	37,529.5	3,380.5	5,454.7
5월 21일	5,844.6	37,299.0	3,387.6	5,454.5
5월 22일	5,842.0	36,985.9	3,380.2	5,424.5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4월말	143.06	1.133	62.5	3,319.1
5월 16일	145.64	1.116	63.8	3,187.2
5월 19일	144.81	1.124	64.2	3,233.5
5월 20일	144.50	1.128	65.0	3,284.6
5월 21일	143.64	1.133	66.0	3,313.5
5월 22일	144.00	1.128	63.8	3,299.8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0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5년 5월 23일 인쇄

2025년 5월 26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 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5권 10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